

# 市·郡行政의 環境과 私人主義의 外部接觸

趙 錫 俊  
(教 授)

## 一. 研究의 目的

### 가. 理論的 背景

行政學이 傳統的으로 行政內部的 微視的, 技術的인 記述과 改善에만 關心이 있어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런 現象은 組織에 관한 理論도 大同小異했다고 볼 수 있다. 卽 組織論은 組織의 內部問題에만 關心이 있었고, 環境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된것은 比較的 近者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組織論分野에서 이 方面에 관한 模型이나 實證的인 研究는 아직 많지 않으며<sup>(1)</sup> 專在 이方面에의 關心이 漸增하고 있다.

發展行政理論分野에서 機關形成理論 (institution building theory)이라는 것이 一角을 차지 하고 있는 것도 周知의 事實이다. 그런데 이 理論의 根源이된 Selznick의 “*Leadership in Administration*”이라는 著書나, 또 機關形成理論은 그의 理論의 性格은 微弱하면서도, 發展行政家의 訓練을 위하여는 매우 有用한 見地로 看做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理論이 指導者가 組織의 環境을 바라보는 方法을 linkage라는 概念을 通하여 提示해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組織의 指導者는 enabling linkage, functional linkage, normative linkage, diffused linkage等을 잘 開拓하고 이들을 組織內部的 諸變數와 잘 連結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또 比較行政 乃至 發展行政의 分野에서 Fred Riggs 流의 學者들은 後進國公務員들의 行態를 說明함에 있어서 T.Parsons의 類型變數를 活用하여 主로 이들의 不合理한 行動樣式을 指摘하면서 特殊主義(particularism), 歸屬主義(ascriptiveness) 등이 先進國보다 많은 것으로 말한다.<sup>(3)</sup> 그의 理論을 따르면 後進國行政은 非公式性이 더 많고, 人間과 人間의 特殊한

(1) 趙錫俊, 組織論, 서울, 法文社 1973. 第1章 參照

(2) cf. D. Woods Thomas, et al. eds., *Institution Building: A Model for Applied Social Change*, Schenkman Publishing Co., Cambridge, Mass., 1972, and Joseph W. Eaton, ed., *Institution Building and Development: from Concepts to Application*,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

(3) cf. Fred W. Riggs, *Administ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Theory of Prismatic Society*,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64.

因緣이나 顔面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人情이 通하는 關係를 重視하는 傾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思考方式을 後進國政治現象에 適用한 理論이 Verba의 小集團理論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바이다.<sup>(4)</sup>

以上을 綜合하면 組織의 指導者가 當面하는 問題를 두가지로 나누어, 組織內部的인 問題와 環境的인 問題로 認知하는 경우에, 後者는 前者보다 더 政治的인 現象이 支配하는 領域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韓國의 組織構成員들은 對外關係에 있어서 더욱 特殊的이고, 歸屬的이며, 靑的인 關係를 重視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本人은 韓國行政文化를 支配하는 네가지의 基本思考方式으로서, “階序主義(Hierarchy),” “私人主義(Personalism),” “一般主義(Generalism),” “官人支配主義”를 列擧한 바가 있다.<sup>(5)</sup> 여기에서 私人主義라고 하는것은 公과 私의 混同, 歸屬性, 對人關係의 重視等을 意味하였었다. 이런 概念은 위의 歸屬性, 特殊性, 靑的關係의 重視와 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現代人(modern man)의 理論에 의하면 이런 私人主義가 없을 수록 現代人이라고 볼 수 있다는 實證的 調查를 바탕으로한 理論들이 있다.

Harvard大學의 Inkeles等이 行한 “近代化過程이 個人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調查에 의하면 後進國內에도 合理性指向의 價値觀과 態度를 가진 人間들이 많은데, 이들은 다른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6)</sup>

Inkeles등은 아르헨티나, 칠리, 인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등의 6,000名을 相對로 하여 近代的人間에 관하여 調查하였다. 近代的人間的 定義는 ① 他人間 및 新立法에 대하여 開放的이고, ② 父母로 부터의 獨立을 主張하고, ③ 運命을 믿지 않고, 科學과 醫學의 效果를 믿고, ④ 높은 職業과 教育을 자기와 자기 子息에게 주려는 野心을 갖고 있고, ⑤ 時間을 嚴守하고 行動을 事前에 計劃하며, ⑥ 公共問題에 흥미를 갖고 參與하며, ⑦ 새로운 뉴스에 接하려고 하며, 特別히 國家的, 國際的次元의 뉴스에 關心이 많은 者라고 하였다.

以上の 6個 國家에서 이런 態도와 價値觀을 가진 者들은 大端히 많다고 하며, 이들이 그렇게 된 社會化過程으로서 제일 重要的 것의 첫째로 公式學校教育을 들고 있고, 둘째로 職場生活(組織生活)의 經驗을 들고 있다.

(4) (cf. S. Verba, *Small Groups and Political Behavior; A Study of Leadership*,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5) 趙錫俊, 前掲書, pp. 32-35.

(6) Alex Inkeles, "Making Men Moder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anges in Six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5, No. 2 (Sept. 1969), pp. 208-225.

Michael Armer等도 “나이지리아”의 Kano市에서의 調査에서 近代의 人間의 개념을 “經驗主義,” “科學에의 信念,” “世俗主義,” “變化受容性,” “相互信賴,” “將來指向,” “家族으로 부더의 獨立,” “自然의 支配”등을 內容으로 하여 面接調査를 한 결과, 이런 諸屬性을 가장 많이 가진者들을 그렇지 않은 者들과 區別하는 가장 중요한 獨立變數는 公式教育이라는 것을 發見하였다.<sup>(7)</sup>

Ajiferuke等은 Mason Haire等の 14個國家(인도, 아르헨틴, 칠레 등 後進國家 包含)에 대한 比率管理 “서-베이” 調査資料의 回歸分析에 의하여 相關關係를 求하여 보았는바, 初·中等學校의 在學生數의 人口對比가 國家間의 管理態度, 思考方式의 差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變數로 나타났다고 한다.<sup>(9)</sup>

以上과 같은 現代人에 대한 經驗的인 比較調査들에서 使用한 現代人의 特性의 概念은 그 相當한 部分에서, 앞에 말한 Parsons나 Riggs의 그것과 重複되는 點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私人主義의 程度도 公式教育이나 職場生活의 經驗의 多少에 의하여 支配되리라는 假說을 定立할 수 있을 것이다.

本研究는 위와 같은 理論的 推理에 의하여 假說을 導出하였다.

#### 나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은데 있다.

첫째 韓國의 公務員이 處하는 環境을 記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具體的으로는 行政組織의 環境을 記述하는 問題이다. 그런데 이 方面에 관하여 아직 가장 初步的인 調査도 이루어진 것이 韓國에는 없다. 여기에 初步的인 調査란 行政組織의 環境을 構成하는 Actors가 누구인가를 把握하는데 그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이 研究에서는 環境을 構成하는 他組織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把握하고 이를 紹介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들 環境構成 Actors들과 接觸하는데 있어서 公務員들이 使用하는 私人主義態度가 어느 정도로 이들의 公式教育의 程度나 職場生活의 長短과 相關關係를 갖고 있는가를 把握하고자 하였다. 勿論 檢證對象인 Null Hypothesis는 公式教育이나 職場生活의 長短은 環境接觸에 있어서의 私人主義의 態度와는 無關하리라는 것이었다.

## 二. 研究의 方法

### 가 私人主義의 概念과 이의 操作化 및 資料分析指針

(7) Michael Armer and Robert Youtz, “Formal Educ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in an African Socie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6, No. 4 (Jan. 1971), pp. 604-626.

(8) Mason Haire, E.E. Ghiselli and L.W. Parter, *Managerial Thinking*, John Wiley, New York, 1966.

(9) Masha Ajiferuke and J. Boddewyn, “Socioeconomic Indicators in Comparative Manage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No. 4 (Dec. 1970), pp. 453-458.

本研究의 必 要를 위하여 公務員이 環境接觸時에 使用하는 私人主義란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흔히 하는 말가운데 우선 知面 있는 사람, 또는 通하는 사람에게 附託하여야 일이 圓滑히 돌아간다고 한다. 따라서 公務員이 他機關을 접촉할 必要性이 있을 때는 그 機關內에 自己와 通하는 사람이 있는가의 여부부터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通한다”는 말은 情이 通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非人格的, 公式的인 要求條件이나 制約도 이 通하는 사이에서는 때때로 違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 “通한다”는 것은 흔히 두사람 사이에 適用되는 말이며, 不特定多數人에게 普遍的으로 適用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第三者의 介入을 排除하는 概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사람만이 意思傳達할 수 있는 條件下에서만 發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行政에서는 이와같은 關係를 利用하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는 觀念 때문에 意思傳達 手段에 있어서는 公文書보다는 口頭로, 그것도 可能하면 直接 對面할 수 있는 條件下에서 하려고 하게 되고, 意思傳達의 內容에 있어서는 嚴格하게 必要한 最小限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나라, 情 또는 私的인 內容을 섞어서 傳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以上을 要約하면 環境接觸에 있어서의 私人主義란, 他機關內的 特定人과의 “特殊的關係를 公務에 活用하고 開拓하려는 態度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한 指標(indicator)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잡았다.

첫째 電話나 公文書에 의하는것 보다 直接訪問하려는 傾向

둘째 事務室 以外的 은밀한 場所에서 만나서 公務에 관한 對話를 하려는 傾向

셋째 對話의 환경에 第三者의 介入을 기피하는 傾向

넷째 對話內容에 情的인것을 混合하는 傾向

以上과 같은 指標들에 의하여 作成된 設問項目은 5種이며, 各各 이를 0부터 10까지의 尺度로서 提示하고 中間點인 5以上을 反對, 5以下를 贊成의 程度로 잡았다. (10)

各問項은 같은 比重으로 取扱하고, 問項別點數를 合하여 問項數에 의하여 나눈것을 그 個人의 私人主義 直로 看做하였다.

#### 나. 環境의 概念과 資料分析指針

本調査에서 環境이라고 하는 것은 被調査者의 勤務機關 以外的 모든 組織과 個人中에서, 그가 自己職務의 執行과 有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으며, 個人의 경우에 職責으로 表示될 수 없는 것(例 有志)은 이를 分析에서 除外하였다.

그리고 같은 系統의 上級機關과 下級機關도 被調査者勤務機關의 環境因子로서 考慮하였다.

環境因子에 關해서는 이것을 事實調査에 의하는 것이 더 適切하다는 評도나올 수 있으나, 調査의 目的이 公務員들 스스로가 어떤 機關이 有關하다고 생각하느냐의 認知狀態를 把握하

(10) 附錄參照

고지 한 것이었기 때문에 設問方法이 더 適切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資料의 分析에서도 어떤사람은 2~3個를 舉示하는데 그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10餘個를 舉示하는 것이 빈번히 發生했기 때문에, 外部機關의 種類를 名稱대로 羅列하여 環境因子的 全部를 表示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調查의 目的이 初步의인 資料를 얻는데 있었음으로 正當化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다. 調查對象機關과 人員

環境因자를 比較의 一目瞭然하게 볼려면 國家 level 보다는 地域社會를 擇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地域社會綜合行政機關인 地方自治團體政府를 擇하기로 하였다.

그리나 道廳은 아직도 그 環境地域이 너무 광활하다고 생각되어서, 市·郡에서 擇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全羅北道全州市, 全羅北道井邑郡廳, 京畿道天安市廳의 세곳을 代表로 選定하였다. 이것은 研究의 便宜와 道廳所在市, 中級市, 그리고 郡에서 各各 一個式擇하겠다는 方針에 따른 것이었다. 換言하면 標本抽出의 理論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調查의 結果가 全國의 市郡을 代表하지 않음은 勿論이다.

이렇게 選定된 3個機關에서는 機關長 以下 고용원에 이르는 全員(雜給除外)을 調查하는 方針로 擇하였다. 全州市本廳은 190名, 天安市本廳은 102名, 井邑郡廳은 96名이 었다.

#### 라. 調查方法和 回收率

위에서 選定된 機關에 限해서는 可能한 限 設問紙의 回收率을 높이기 위하여 直接 本人이 訪問하여 設問紙를 配布하고, 集團的으로 設問紙에 대한 說明을 한뒤에 1日 乃至 2日의 期間을 待期하여 收集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다.

이렇게 하여 收集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1. 設問紙 回收率

		對 象 人 員	設問紙回收件數	同回收率 (%)
全	州	190	157	82.5
天	安	102	95	93.1
井	邑	96	70	72.9
計		388	322	平均回收率=82.8

### 三. 研究의 結果

#### 가 環境構成 Actors의 種類와 分布

應答者들이 記憶나는 대로 自己의 執務와 關聯 있는 組織 또는 個人을 적은 것을 國家機關, 政黨 및 一般社會團體, 企業關係社會團體, 個人의 部類로 分類하였다.

여기서 國家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行政府의 軍隊와 檢察, 司法府의 法院을 包含한 概念

으로 使用하였다.

政黨 및 一般社會團體의 속에는 文化關係, 專問職業關係, 親睦關係, 國策에 의하여 만들어진 團體를 包含시켰다.

企業關係社會團體라 함은 企業活動을 中必으로 모인 團體를 말하며, 國營企業體와 言論放送企業도 包含시켰다.

個人이라 함은 國會議員,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새마을指導者等を 말한다.

이제 이것들의 地域別分布를 보면 表 2 와 같다.

表 2. 環境構成 Actors들의 地域別分布

		國 家 機 關	政黨社會團體	企業關係社會團體	個人	計
全	州	27	29	32	2	90
天	安	25	28	22	3	78
井	邑	19	13	31	2	65

表 2 에 나온 것은 單一地域에서는 種類의 數와 같지만 2個以上地域에서는 種類는 相當한 程度로 重復된다. 따라서 모든 重復을 排除하고 三地域에 있는 Actors들의 種類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國 家 機 關 37種  
 政黨一般社會團體 45種  
 企業關係社會團體 57種  
 個 人 5種  
 計 145種

세地域의 應答者들이 共通으로 指摘한 Actors들을 보면 表 3 과 같다. 이것은 이런 Actors들만이 實際에 있어서도 共存한다는 것이 아니고, 公務員들의 認知世界에서 가장 普遍的으로 떠오르는 組織이라는 것을 意味할 따름이다.

表 3. 三個地域 公務員認知속에 共存하는 Actors

國 家 機 關	警 察 署	政 黨 及 一 般 社 會 團 體	地 籍 協 會	企 業 關 係 社 會 團 體	商 工 會 議 所	個 人	없 음
	派 出 所		代 書 士		畜 產 協 同 組 合		
	保 健 所		再 建 國 民 運 動		山 林 組 合		
	農 村 指 導 所		本 部		土 地 改 良 組 合		
	市(郡)教 育 廳		韓 國 婦 人 會		農 協 場		
	各 級 學 校		政 黨				
	稅 務 署		Rotary Club				
	郵 遞 局						
	檢 察 院						
	法 情 報						

이제 各分類별로 그 名稱에 따라서 三地域에서 言及된 것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

에 언급된 莫大한 種類의 Actors들이 實在하는 것에 틀림 없으며, 以外에도 公務員들의 認知망에 있는 Actors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實際調査에 의하여 把握하면 特定地域(社會內)의 組織體들의 전모가 把握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表 4. 有關國家機關의 地域別, 種類別分布 : 公務員들의 認知層 中心으로

		全	州	天	安	井	邑
1	道廳	○					○
2	地方兵務廳	○					
3	警察署	○		○			○
4	派出所	○		○			○
5	消防署	○		○			
6	洞事務所	○					
7	邑面事務所						○
8	水道事業所	○					
9	工業團地管理廳	○					
10	道立病院	○		○			
11	保健所	○		○			○
12	農村指導所	○		○			○
13	農產物檢査所	○		○			○
14	林業試驗場	○					
15	道教育委員會	○					
16	市郡教育廳	○		○			○
17	各級學校	○		○			○
18	稅務署	○		○			○
19	專賣署						○
20	煙草製造廠	○					
21	地方遞信廳	○					
22	電話局	○		○			
23	郵遞局	○		○			○
24	援護支廳	○		○			
25	勞動廳地方事務所	○		○			
26	驛	○		○			
27	土木管區			○			
28	建設事業所						○
29	砂防管理所			○			○
30	郡廳	○		○			
31	軍部隊			○			○
32	保安隊			○			
33	(地域)豫備軍			○			
34	地方檢察廳(支廳)	○		○			○
35	地方法院(支院), 登記所	○		○			○
36	情報部支部	○		○			○
37	選舉管理委員會			○			

表 5. 有關政黨 및 一般社會團體의 地域別, 種類別分布 : 公務員들의 認知를 中心으로

		全 州	天 安	井 邑
1	建設協會	○		
2	建築士協會	○		
3	地籍協會	○	○	○
4	司法書士會(行政代書포함)	○	○	○
5	藝總支會	○		
6	文化院	○	○	
7	體育會	○	○	
8	宗教團體	○	○	
9	國樂協會 組合	○		
10	鄉校	○		
11	宗親會		○	
12	公演協會	○		
13	醫師會	○		○
14	獸醫師會	○		
15	藥師會	○		○
16	看護協會			○
17	寄生蟲拮滅協會	○	○	
18	癩協會	○	○	
19	結核協會		○	
20	職業安身所		○	
21	赤十字支社	○	○	
22	援護遺族會 및 軍警遺族會	○	○	
23	警友會	○		
24	防犯委員會	○		
25	反共聯盟支部	○	○	
26	在鄉軍人會支部		○	
27	保安協會	○		
28	再建國民運動支部	○	○	○
29	Lions Club	○		
30	Rotary Club	○	○	
31	韓國婦人會	○	○	○
32	婦人協進會	○		○
33	政黨	○		○
34	새마을青年團		○	
35	4-H구락부		○	
36	어머니會		○	
37	親睦契		○	
38	敬老會		○	
39	記者協會		○	○
40	美化會		○	
41	農地改良契		○	
42	中等教育會		○	
43	洞開發委員會		○	



44	市(郡)政諮問委員會		○	○
45	都市計劃委員會	○		

表 6. 企業關係有關社會團體의 地域別種類別分布 : 公務員들의 認知量 中心으로

		全 州	天 安	井 邑
1	商工會議所	○	○	○
2	青年會議所			○
3	中央都賣市場	○		
4	市場繁榮會	○	○	
5	水道指定業所	○		
6	工業團地內企業主	○		
7	建設業體	○		○
8	建築設計事務所			○
9	市内叫스共同管理委員會	○	○	
10	道叫스事業組合	○		
11	道택시事業組合	○		
12	道貨物事業組合	○		
13	市外叫스組合		○	
14	運輸業體	○	○	
15	畜產協同組合	○	○	○
16	道企業畜產協會	○		
17	牛乳處理場	○		
18	牛乳加工場	○		
19	家畜病院	○		○
20	山林組合	○	○	○
21	養苗協會	○		
22	土地改良組合	○	○	○
23	製絲工場			○
24	養蠶協同組合			○
25	梁苗協會			○
26	家內工業센타	○		
27	郡農協	○		○
28	市農協	○	○	
29	農協特殊組合			○
30	園藝組合			○
31	葉煙草組合			○
32	銀行(市, 郡金庫, 地方銀行 포함)	○	○	
33	各勞組	○		
34	一般企業體	○	○	
35	各病院	○	○	
36	새마을工場	○		
37	劇場	○	○	○
38	韓電支店(營業所)	○	○	
39	農業振興公社支部	○	○	

40	各新聞社	○	○	
41	各放送局(TV포함)	○	○	
42	市場組合		○	
43	料食業組合		○	○
44	理容組合			○
45	食肉組合			○
46	宿泊業組合			○
47	美容業組合			○
48	茶房業組合			○
49	保險會社		○	○
50	大韓通運支店		○	○
51	監定院支店		○	○
52	糧穀加工組合			○
53	糧穀商組合			○
54	政府糧穀搗精工場			○
55	煙草生產組合			○
56	商工協會			○
57	藥局			○

表 7. 有關個人的 地域別, 種類別分布 : 公務員들의 認知量 中心으로

		全 州	天 安	井 邑
1	國會議員		○	○
2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	○
3	새마을指導者		○	
4	婦女子有志	○		
5	農民	○		

나. 公式教育年限과 經歷年限의 分布

1. 教 育

公式教育年限은 三個의 對象機關間에 有意한 差異가 없었다. 以下에는 이를 統合하여 提示하기로 한다.

表 8. 市郡公務員들의 學歷分布

	人 員 數	比 (%)
小 校 卒	13	4
中 退 및 卒	16	5
高 退 및 卒	253	63
大 退 및 卒	90	28
計	322	100

以上에서 알 수 있는 것은 市郡公務員들은 그 過半數가 高卒程度의 學歷을 갖고 있고, 約  $\frac{1}{3}$  程度가 大卒이며, 中學校 以下는 10%에 未達한다는 것이다.

## 2. 經 歷

經歷資料도 三個機關間에 有意한 差異가 없으므로 이를 統合하여 提示한다. 調查의 目的에 비하여 內務部 以外(軍隊包含)의 勤務年限을 包含한 總職場經驗年數에 더 많은 關心이 있었으나, 單純한 興味로 內務部에 오게된 以後의 年限에 대하여 別途의 問項을 設置하였다.

以下에서는 兩者를 區別하여 提示하기로 한다.

表 9. 市·郡公務員들의 內務部傘下 勤務年數

年 數	人 員 數	比 (%)
1—3 年	54	16.8
4—6	76	23.6
7—9	65	20.2
10—12	91	25.2
13—15	17	5.3
16—18	8	2.5
19—21	7	2.2
22—24	5	1.5
25—27	4	1.2
28—30	3	0.9
31—33	1	0.3
34—36	1	0.3
計	322	100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近 85%의 公務員들이 12年 以下의 內務部勤務經歷을 갖고 있고, 特히 4年부터 12年까지의 層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이제 軍隊와 他機關勤務年限 및 內務部 勤務年限을 合한것을 보면 表 10과 같다.

表 10. 市·郡公務員들의 全勤務年數

年 限	人 員 數	比 (%)
1—3 年	14	4.4
4—6	38	11.8
7—8	61	18.9
10—12	74	23.0
13—15	70	21.7
16—18	24	7.5
19—21	12	3.7
22—24	6	1.9
25—27	12	3.7
28—30	5	1.6
31—33	3	0.9
34—36	2	0.6
37—39	1	0.3
計	322	100

이 表에서 可 見 有는 것은 約 85%程度가 21年以下의 職場經驗所持者이며, 特히 15年以  
下의 經歷者가 約 75%程度를 占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 私人主義尺度值와 教育 및 經歷年限의 相關關係

##### 1. 私人主義尺度值

私人主義尺度值의 Mean과 S.D.는 다음과 같다.

$$M.=4.9076$$

$$S.D.=1.0198$$

##### 2. 教育年限值

$$M=13.6\text{년}$$

$$S.D.=1.96\text{년}$$

##### 3. 全經歷年限值

$$M=12.82\text{년}$$

$$S.D.=6.16\text{년}$$

##### 4. 教育年限과 私人主義의 相關關係

兩者間의 Pearson相關係數는 0.008로 나왔다.

따라서 相關關係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 5. 全經歷年限과 私人主義의 相關關係

兩者間의 Pearson相關係數는 0.0001로 나왔다. 教育의 경우에 比하여 더욱 相關關係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以上과 같이 私人主義와 教育年限 및 經歷年限과의 사이에는 거의 相關關係가 없  
음이 證明되었다. 따라서 앞에 提示한 Null Hypothesis는 옳다고 생각된다.

兩係數가 너무나 적기때문에, 經歷과 教育을 合하여 私人主義와의 相關關係를 究明할라  
는 作業도 포기 하였고, 또 Pearson係數以外의 다른 方法에 의한 相關分析을 하여도 係數를  
얼마 增加시키지 못하리라 생각되어서 그 努力을 포기하였다.

## 四. 評價 및 結論

앞에 提示한 두가지의 研究目的에 비추어, 이 研究結果를 다음과 같이 評價할 수 있을 것  
이다.

첫째로 環境構成 Actors들을 찾아내는 作業에는 比較的 成功하였다고 할 수 있다. 市郡  
行政機關을 둘러싼 環境 Actors들이 그 種類에 있어서 매우 多様하며, 우리들 國民生活의  
구석구석까지 行政이 關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多樣한 種類는 이를 同種復數組織의 경우를 습하여 單純한 數에 의해서 把握한다면 莫大한 數字에 到達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들 組織을 團體登錄簿等에 依하지 않고, 公務員들의 認知를 通해서 求했다는 點은, 이들 Actors들이야말로 行政機關의 運營을 위하여 交互關係를 갖는 것들이라는 것을 意味한 可能性도 많다고 할 수 있다.

環境 Factors들에 관한 이 資料는 다음과 같은 用途에 使用될수 있을 것이다. 卽 組織論에서의 組織과 環境의 關係를 규명하기 위한 研究의 出發資料로서, 그리고 機關形成論에 의한 linkage對象機關이나 個人들에 관한 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市長, 郡守用的 訓練教材의 開發을 위해서도 必要한 資料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指導者를 行使하는데 있어서는 環境管理가 主된 任務이며, 따라서 下級者들이 所管別로 接觸하여야 하는 環境들에 관하여도 主된 責任은 最高指導者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現職市長, 郡守들도 이 많은 環境因子를 明白히 意識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우기 新任의 市長, 郡守의 경우에는 그런 可能性이 더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와같은 資料는 將次 地域社會의 指導者構造와 그속의 交互作用을 研究하려는 者들에게도 有用한 資料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Sociometry에 의한 方法을 補完하거나 相互 척 크하기 위한 用途에 쓰는 것이 그 例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約 30萬市民을 가진 一個市長(例 全州)은 約 140種類에 屬하는, 아마 數百의 團體와 그들이 各種代表者 近 1000名을 自己의 意識속에 넣고 있으면서, 管理에 臨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로 私人主義와 教育年限 및 經歷年限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는 意外의 結果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言及한 Inkeles, Ajifcruke, Armcr等の 研究結果에서 導出될 수 있는 結論과는 相反된 結果가 나왔다.

그 主된 理由는 다음과 같은데 있는 것 같다. 이 研究에서 定義한 環境接觸時의 私人主義의 內容기 事實은 우리나라의 오랜 儒敎文化的 傳統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對人關係의 禮節觀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의 諸學者의 研究地域속에는 儒敎文化的 傳統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包含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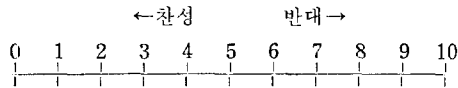
그러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公式教育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近代官僚制의 經驗이 많다 하더라도, 이런 私人主義의 傾向은 좀체로 退化하지 않고, 이들에 關係없이 사람들은 相對方機關內的 親面 있는 사람을 通해서 接觸할라고 하고, 公文書보다 對話, 그리고 可能하면 情的인 表現도 할 수 있는 二人間對話의 與件속에서 일을 處理하려고 하

는 傾向이 많은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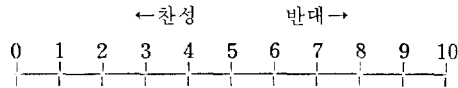
### 附錄：設問紙

(이 設問紙를 적는데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의논 하여서는 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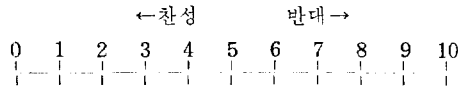
1. 근무기관                                      2. 현재의 보직(또는 소속係)                                      3. 직종
4. 직급                                              5. 최종학교(졸업 또는 중퇴표시)                                      6. 內務部산하 근무年數
7. 內務部산하 以外的 직장경험年數(軍隊포함)
8. 귀하가 근무하는 市(郡)의 일이 잘 되려면 市本청(郡本청)以外的 여러 機關이나 外部사람들이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市本청(郡本청)이 협조, 지지,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市(郡)가 협조, 지지, 지원을 하여 주는 機關, 團體, 集團, 個人의 이름을 나열하십시오. 많을 수록 좋습니다(個人은 이름을 쓰지 말고 추구, 친지, 유지로 표현하거나 가명을 사용 하십시오)
9. 公務에 국하여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면이 없는 사람이면, 직접 찾아 뵈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이하의 한지점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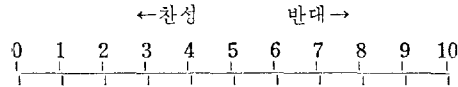
10.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으려면 그 기관내에 평소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접촉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11. 다른 기관의 사람과 접촉하려면 그의 사무실 아닌곳에서 만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때가 많다고 합니다.



12. 다른 기관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하려면 제 3자가 듣지 않는 환경속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3. 다른 기관의 사람과 이야기 할 때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간혹 섞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